

새정치 “방미 전 국정화 시나리오 완성...국민·국회 기만”

정부 교과서 국정화 예산 예비비 44억원 ‘비밀 편성’ 논란

정부가 지난 13일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비비(44억원) 지출을 이미 의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내주지 않겠다’던 야당의 입장에서 사실상 ‘무기’를 잃은 셈이어서 새정치연합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이외에 다른 예산심의 보이콧 등의 ‘연계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

이들 반영하듯 20일 열린 새정치연합 원내대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와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이준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예비비가 의결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친일미화’ 교과서를 잘 하라며 미국으로 출국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국정 교과서 시나리오를 완성해 놓고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예비비 지출 관련 국가재정법 위반이자 행정예고 관련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예비비 지출을 의결해놓고도 결정된 게 없는 것처럼

野 예산 ‘무기’ 잃어 난감 내년 예산심의 보이콧 고민 최부총리 ‘적법...문제 없어’

럼 위중했다며 책임론을 제기하는 한편 예산심의 전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산심의 전면연계 카드가 실제로 쟁기 못하는 것은 물론 여론의 역풍도 배제할 수 없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심의 연계를 야부에 대해 “우선 예산투쟁은 교문 위 예산 심의 문제에 우선 집중할 생각”이라며 예산심의 보이콧에는 거리를 뒀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반대 여론이 찬성론에 비해 본격적으로 우위를 점했다고 보고 여론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도 미래창조과학부 송신우 소속 의원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서명운동에 나선 것을 비롯해 온라인과 방송을 통한 홍보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예산으로 44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것을 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기재위가 시작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예비비 승인 의혹을 추궁했고 최 부총리는 “2017년 3월까지 교과서를 보급하려면 지금 (작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비비 편성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편성했다”고 비판했으며 김영록 의원은 “예비비 44억원을 국무회의에서 사실상 비밀리에 의결한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예비비 편성 요건이 된다고 보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킨 것”이라며 “(예비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뿐더러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새정치연합 홍준하 의원은 “정부가 2017년에 발간하려고 서두르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에 맞추기 위해서 아니냐”고 주장했으며 최 부총리는 “너무 음모론적으로 보지 말라”고 맞받아치기도 했다.



20일 광주시 북구 대촌동 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국무총리와 윤장현 광주시장(왼쪽)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업종구역 해제 진곡산단 분양률 15%→82% 경충 완도 국유지 양식장 규제 풀어 1000억 매출↑ 기대

국편 집필진 구성 난항...시한 한달 연기

“불참 선언했다더라도 집요하게 설득해 꼭 참여시킬 것”

국사편찬위원회(국편)가 2017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단일 교과서 제작을 위한 총알을 확보함에 따라 첫 단계인 집필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일 교육부와 국편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단일 교과서 개발에 필요한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의결하고 이 중 일부를 국편에 보냈다. 국편에 배정된 예산은 약 1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편은 이 예산을 어떤 항목에 얼마나 지출할지 세부적인 계획을 짜고 있다.

우선 집필진 인건비에 가장 많은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정배 위원장은 “(집필자들) 초빙할 때는 예우를 차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어려운 일을 맡는 사람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편 관계자는 “이외에도 자료 수집

과 새 교과서 디자인 도안·인쇄·보급 등 출판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에 돈이 쓰인다”며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을 조만간 확정해 교육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국편은 더욱 적극적으로 집필진에 나설 방침이다. 집필진 규모는 애초 계획한 20~40명을 유지한다. 다만, 구성 시한은 이날 말에서 다음 달 말로 한 달 연기됐다.

주요 대학 역사 관련 학과 교수와 주요 역사학회가 잇달아 교과서 제작과 관련된 과정에 불참할 것을 선언하면서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집필진을 구성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불참을 선언한 곳은 한국역사연구회와 한국근현대학회이다. 두 학회에 소속된 회원은 한국역사연구회가 700여명, 한국근현대학회가 500여명이다. 중복 회원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최소 700명이 넘는 연구자가 이들 학회에 소속돼 있는 것이다. 이미 대학을 중심으로 개별 역사학자들의 불참 선언이 나온 상황에서 학계를 대표하는 기구인 학회마저 등을 돌리면 교과서 제작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편 관계자는 그러나 “교과서를 제작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집필 불참을 선언했다더라도 집요하게 설득해서 꼭 참여시키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새 교과서의 집필방향을 결정 짓는 집필기준과 편수용어는 조만간 확정된다. 국편은 지난 9월 공청회를 통해 집필기준과 편수용어 시안을 공개했으며 현재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편 측은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관련한 이렇듯 국정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이후 국정 전환이 결정된 만큼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총리 주재 광주 규제개혁 점검 회의 우수 사례

20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소개된 광주 진곡산단은 규제 개선으로 기업투자가 살아난 대표사례로 꼽힌다. 또 완도군의 육상 양식업장 입지 규제 해소도 국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개선한 사례로 평가됐다.

◇진곡산단 분양률 15%에서 82%로=진곡산단은 2009년부터 6년간 광주 광산구 진곡·고룡·오선·하남동 일원 190만 8000㎡(57만7000평)에 3419억원을 들여 조성됐다. 이 가운데 공장용지는 52.3%인 99만8000㎡가량이다.

애초 이곳은 자동차산업 중심 산단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입주허용 업종을 전자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장비제조업,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 연구개발업 등 4개로 제한했다.

환경오염 발생계수를 산출해 업종별 입주구역도 획일적으로 설정하면서 기업의

선택권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가벼운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7조에 따라 규제를 완화했다. 업종에 따라 지정구역에 입주하는 업종별 획일적 입주 규제를 해제하고, 입주 가능 업종을 기존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하면서 분양실적이 2012년 28필지(15%)에서 올해 194필지(82%)로 크게 늘었다. 규제 완화 이후 현대위아(주) 등 151개 기업이 추가 신청하는 등 현재 191개 기업이 입주했다.

미분양 시 90억원에 달했을 이자 등 시 재정 부담도 줄었으며, 산단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 목표와 연계한 부품업체 전용 산단으로 중책도 맡게 됐다.

◇무허가 양식어가 1000억원 매출 증대=육상양식장의 경우 바다와 인접할 수밖에 없어 기계시설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으나 국유재산관리법상 ‘영구시설

축조 금지 규정’으로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 무허가로 육상양식장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완도군 내에도 36개 양식장 시설물이 국유재산 내에 자리해 단속 위기에 처하자 완도군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행자부 규제개혁 추진단이 지난해 10월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난 6월 국유재산 내 신규양식장 영구시설물 축조를 최초로 승인했다. 또 양식장 시설물이 위치한 국유재산을 분할 측량한 후 양식어가 매각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에는 국유재산 시설물 사용 승낙서를 발급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이 같은 육상 양식장의 예로 해소로 36개 무허가 양식어의 1000억원 매출 증대, 150여 명의 고용 창출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완도군은 전망했다.

메아리소리가 들려오는 제주여행

버스타어(2박3일)

상품가격	완도, 여수출발 269,000원 / 목포출발 249,000원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출발인원	10인 이상출발 / 10인 이하 별도 문의 / 20인 이상 오메가서비스
포함사항	1. 선박: 완도-제주 or 목포-제주 왕복 선박 (여객터미널 이용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4인실 기준 2박 3. 차량: 25인승 소형버스 3일 (20명 이상 45인승 대형버스) 4. 전일정 관광지, 전일정 식사 포함 (완도발 7식, 목포발 6식)
선박정보	블루나래호: 완도(09:30발) → 제주(11:10착) / 제주(16:30발) → 완도(18:10착) 씨스타크루즈호: 목포(09:00발) → 제주(13:20착) / 제주(17:00발) → 목포(21:20착)
1일차	목포 or 완도항 출발 → 제주항도착 → 비비방만들기체험(목포출발 제외) → 천연염색체험 → 메아리체험(제주오름 트레킹) → 저녁식사(갈치조림) → 숙소
2일차	숙소 → 한라산 원전정복(성판악-백록담 코스 / 증식 도시락) → 해수사우나 → 저녁식사(흑돼지구이) → 숙소
3일차	숙소 → 세계유네스코 등재 수월봉, 차귀도 탐방 → 점심식사(해물전골) → 조랑말승마체험 → 디미파크 기마공연(완도출발 제외) → 농수산물 직판장 → 제주항 → 목포 or 완도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렌터카 자유여행(2박3일)

상품가격	4인기준 1인 149,000원부터 / 3인기준 1인 169,000원부터 2인기준 1인 214,000원부터 상품판매기간: 10월12일 ~ 12월 20일까지 * 본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출발인원	2인 이상출발
포함사항	1. 항공: 아시아나항공 왕복 항공권 (공항세, 유류할증료 포함) 2. 호텔: 신축 관광호텔 2박 기준 (2인 조식포함) 3. 차량: K5, YF소나타 LPG 기준 (48시간) / 종합보험(대인,대물,자손) 포함 4. 식사, 관광지 불포함.
항공정보	항공사: 아시아나항공 / 이코노미(일반석) 항공시간: 광주출발: 15:45 제주출발: 14:25 (2박3일 일정) 유의사항: 항공기 정비 및 기상 상황에 따라 운항 스케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일차	광주공항 출발 → 제주공항도착 후 렌터카 인수 → 자유일정 → 숙소
2일차	자유일정
3일차	숙소 → 자유일정 → 제주공항 도착 및 렌터카 반납 → 광주공항 도착

본 일정은 현지 기상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숙소

제주할인 펜션	1박 50,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리조트	1박 8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제주할인 호텔	1박 75,000원 부터 (2인기준 / 주중, 주말, 연휴기간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수 있음.)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할인 제주렌터카

아반떼, 레이, K3, SM3	[24시간 기준] 주중 17,000원 / 주말 23,000원
K5, YF소나타	[24시간 기준] 주중 19,000원 / 주말 26,000원
카니발, 그랜저스타렉스	[24시간 기준] 주중 39,000원 / 주말 49,000원

본 상품은 예약현황에 따라 조기마감될 수 있으며, 소비자보호원의 취소수수료 규정을 따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컨소시엄 참여업체 예약문의 | 064-743-1100